

본지 창간 10주년 기념 '김윤오 창작단청문양전' ...10월 13~19일 경인미술관

8만 4천가지 창작 단청문양 신비를 느껴 보세요

오방색과 기하학의 절묘한 조화가 어우러진 8만4천 창작 단청 문양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현대불교신문(발행인 김광삼)은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3일(수)부터 19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김윤오 8만 4천 창작 단청문양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에는 '당초질림' '당초연화' '쌀미' '유마니반메홀' '장단의연일' '징육면체' '지장보살' '천개의 눈' '금시조' '구룡' '봉황' '천수천안' 등의 금문양과 '괴면' '박쥐 연화' '만다라화' '쇠코 연화' 등의 금머리조, '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음보살' '별화' 등 김윤오씨(51세)의 대표작품 100여점이 선보인다.

응용작품 수익금 일부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 단청 채색시연회도 열려



연화꽃 누루미

이와 함께 단청문양을 응용한 구룡금문양 및 연화문양 탁자와 연화문양 발우, 나전 모란문양 건칠반, 송화 및 연화 꽃누루미, 삼태주 금문양 십자수, 단청문양 액세서리, 단청문양 병풍등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12년간 생계를 뒤로 한 채 원주시 부론면 법전사지 옆 손곡리 폐교 한 칸에서 단청문양 창작에만 전념해온 김윤오씨의 첫 전시회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국내 단청계의 거장 故 한석성(韓奭成) 선생의 제보를 잇고 있는 김 거사는 200~300여개에 불과한 전통문양에 바탕하여 금머리조 3만장, 금문양 5만장, 지장보살, 학, 천수천안, 봉황, 귀면등이 4천여장 등 총 8만4천여장에 이르는 단청문양을 창작했다.

김윤오씨는 "전통을 지키고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만큼 일반인들에게도 단청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급성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은 "본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김윤오 8만4천 창작 단청문양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미지와 상징의 보고인 단청문양의 개발과 더불어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시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막식날인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풍물패의 공연이 있고, 16~17일 10~15시에는 단청문양 채색 시연회도 마련된다. 문의 02722-4162-3

김원우 기자



지장보살금문양



단청문양을 응용한 응용품들. 사진 왼쪽부터 액세서리, 나전모란 문양건칠반, 연화문양발우.



■ 단청장 김윤오는?

김윤오씨는 18세 되던 1971년 불국사에서 작업하던 국내 단청계의 거장 故 한석성 선생 문하에 들어갔다. 그를 본 스승은 "맨손으로는 용을 잡을 수가 없으며, 선 자리에서 성불(成佛)할 수 없다. 끊임없는 자기수행을 통해서만 '도'를 얻을 수 있다"는 화두(話頭)를 준 뒤 8년간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알아서 화공들의 심부름을 하며, 어깨 너머로 단청을 배우는 고된 생활 끝에 1979년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사찰을 떠나 화승의 길을 걸은 김윤오씨는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도 했다. 기술을 인정받은 그는 20년간 월정사 송광사 불국사 마곡사를 비롯 천마총 무녕왕릉, 김유신 사당등 한국의 크고 굵직한 문화재 보수작업에 거의 모두 참여했다.

그러던 그에게 1991년부터 그에게 의문이 다가왔다. '왜 한국불교 1700여년에 200~300여가지 문양으로 한 정돼 있는가. 더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이 화두는 풀을 수 없는 고행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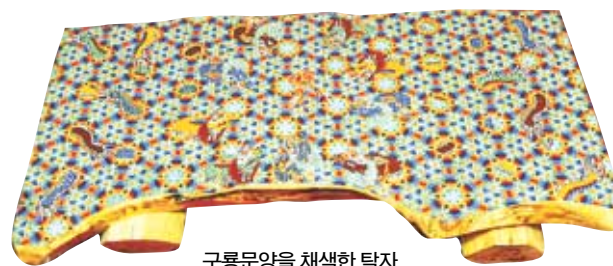
그는 2년 동안 새로운 단청문양 창작을 염원하며, 그야말로 단청문양과 사투를 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단청문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원(願)을 세운 뒤 자신의 몸뚱이를 버리기로 부처님 전에 다짐했다. 그러자 주위의 어려운 모습들이 보였다. 그들을 보며 단청문양을 생각했다. 그가 본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소망을 담은 단청문양을 만들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문양이 자유자재로 그려졌다.

그때부터 10여평 남짓한 지하셋방에 작은 밥상을 놓고 단청문양을 완성해나갔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종이에 기도문을 쓰고, 기도하면서 문양을 그려나갔다.

두문불출하며, 잠도 자는 등 마는 등, 밥도 하루 한 끼를 먹는 등 마는 등 단청의 세계에 빠져들던 12년의 세월. 그에게 남은 것은 45kg의 몸무게와 빠져버린 앞이빨 7개 그리고 8만4천개의 단청문양이 전부다.

그는 힘든 세월을 견디며 8만 4천여 가지의 단청문양을 완성했다. 그는 현재 단청문양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다.



구룡문양을 채색한 탁자.



당초연화금문양(사진 위)과 정육면체금문양(사진 아래).

나눔의 손잡기

김윤오 8만4천 창작단청문양 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5~10%는 본지에서 펼치고 있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의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불기 2548년 제 8회 광주·전남 불교 합창 예술제

- 초대손님 : 산울림,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단
- 일 시 : 2004년 10월 16일(토) 오후 5시 | ● 장 소 : 광주 남도예술회관(도청앞)
- 주 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062-376-3223)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산 1번지
- 후 원 : 광주광역시, BBS 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 광주불교신문
- 협 찬 : 백양사, 화엄사, 승광사, 대흥사, 선암사



출연합창단

- ▲ 금광사 합창단 010-2410-3311
- ▲ 백양사 합창단 062-232-0416
- ▲ 사암연합회 합창단 016-9226-3306
- ▲ 원각사 합창단 062-223-3168
- ▲ 중심사 합창단 062-226-0107
- ▲ 한마음선원 합창단 062-376-8801
- ▲ 향림사 합창단 016-635-5227

불교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은
과 사찰 합창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종 명** : 수산스님, 도천스님, 보성스님, 천운스님
- **고 문** : 지선스님, 지암스님, 지허스님, 성호스님, 상명스님
- **자문위원** : 두백스님, 명섭스님, 영조스님, 몽산스님
- **지도위원** : 경주스님(신광사), 현지스님(원효사), 광민스님(무각사), 광운스님(성각사), 지각스님(동원사), 원명스님(학림사), 경준스님(자운암)
- **회 장** : **해항 스님(학림사)**
- **수석부회장** : 석장 스님(문빈정사)
- **부 회 장** : 정인스님(규봉암), 월인스님(법륜사), 무등스님(천룡사), 상운스님(홍룡사)
- **감 사** : 도산스님(대각사), 설래장스님(금광사)
- **기 획** : 실장 진화스님(중심사), 국장 석두스님(광제사)
- **총무부장** : 무이스님(덕림사) ● **문화부장** : 일명스님(금선사)
- **교무부장** : 일희스님(대원정사) ● **의전부장** : 시각스님(만덕사)
- **홍보부장** : 도제스님(원각사) ● **포교부장** : 한운스님(약사사)
- **재무부장** : 해월스님(한마음선원) ● **사회부장** : 효진스님(광덕사) ● **호법부장** : 무심스님(성연사)
- **특별위원회**
 - 총무분과위원회 : 총무부장
 - 언론홍보분과위원회 : 기획실장
 - 사회복지위원회 : 명신스님(연화사), 동초스님(정안사), 현정스님(연화사)
 - 통일환경분과위원회 : 행법스님(선덕사), 정선스님(대광사), 보영스님(정광사)
 - 경승교정위원회 : 시공스님(만경사), 능인법사(광록사), 원혜정사(영광심인당)

제16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임원일동